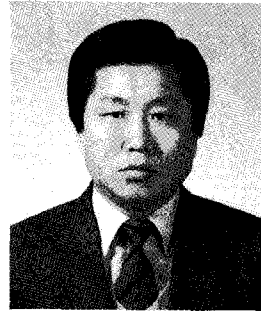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관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I)



이 태 호
농림수산부 축정과

1. 우리나라 축산의 위치

90년대 들어선 우리나라 축산업은 벽두부터 GATT/BOP 졸업과 함께 UR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수입개방이라는 커다란 물결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 UR협상이 결렬되면서 당초 NTC 품목으로 선정했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등도 오히려 더 확대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개방에서 품목도 그 시기를 앞당겨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문제로는 가격의 주기적 변동도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으며, 축산 폐수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도 축

산업계에까지 심각하게 미쳐오고 있어 우리 양축 농가들은 경영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축산여건이 불리해짐에 따라 축산을 포기하고 전업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축산물 가격이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가축두수는 기대만큼 늘어나 주지 않음으로서 일편 수입개방을 거부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절대량은 계속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양돈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돼지가격이 폭락했던 89년도에 양돈불황에서 벗어나 90년도에는 연평균 가격이 14만8천원으로 호황을 누렸고 금년도도 3월 현재까

지 16만원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는 90.3월 현재 4,487천두로 지난 연말 4,528천두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을 나타내는 등 우리나라 축산업은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수급이나 사육전망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수입개방 압력과 대내적인 축산여건 악화 속에서 우리 축산업을 수입개방 이후에도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유지시켜 나간다는 방침아래 90년부터 200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축산장기발전대책」과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90. 6. 22)하게 되었는바 본 축산관측제도 개선 대책도 축산장기발전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2. 축산관측의 필요성 및 목적

개별 양축 농가들은 항상 어떤 가축을 언제 얼마나 입식하여 생산하고 출하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름대로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개별 양축가가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비록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개별농가의 능력으로서는 이들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거시적이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방대한 조직을 이용, 축산업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관측하여 그 결과를 알려준다면 개별 양축농가의 경영계획이나 출하계획 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며, 나아가 축산정책 수립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미국 농업관측회의 창시자인 테일러(H. C. TAYLOR) 박사는 「농업 관측의 목적은 새로운 농업경영의 기획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경쟁관

계에 있는 수요와 공급조건에 관한 상황을 조감하기 위한 것이며 농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현명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축산관측은 농업관측에 포함되는 일분야로서 편의상 축산관측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농업관측의 목적과 같이 축산관측의 목적도 첫째, 양축농가의 합리적인 축산계획수립과 계획의 조정을 위한 시기적절한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축산물 생산의 불안정 완화 즉, 사전적 생산조절을 통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둘째, 유통업자들의 축산물 마케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셋째, 정부의 장·단기 축산종합발전대책 수립시 등 정책지침을 제공하는데도 그 실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3. 주요 국가들의 관측제도

미국

미국의 축산관측은 농업관측에 포함되어 1922년부터 실시되었는데 그 배경을 보면 1920년 전후의 미국경제가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극심한 경기후퇴를 하였는데 이때 공업보다 농업쪽이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쳐 공업과 농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농업관측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930년에 들어와서 다시 격심한 농업불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모든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게 되자 농업관측을 할 여지가 없어지고 따라서 농업관측사업은 후퇴하게 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잉여농산물의 누적과 재고 처리문제가 대두되면서 농업관측사업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 관측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즉 어떤 생산기간 및 판매기간에 앞서 가능한한 정확히 가격을 예측하고 이 예측을 바탕으로 예시

가격을 공표함으로써 직접적인 가격통제 없이도 수급 및 가격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농업관측업무는 USDA(농무부)의 농업경제국(Economic Research Servic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서 마련한 관측안을 농업관측심의회(Outlook and Situation Board)에 의하여 종합검토되고 최종보고서는 연방농업관측회의(National Agricultural Outlook Conference)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축산물 공급추정은 통계국과 농업경제국이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에서 관측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조직화하는 주임무는 농업경제국의 3개과에 있다.

관측방법은 개별품목에 대하여 2년 이하의 단기 관측을 주로 하고 있으나 연방경제분석과에서는 1

년 미만의 단기관측에서 3년정도의 중기관측에 이르기까지 농업전반에 대한 관측을 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주요 농업관측관계 간행물을 보면 농업관측(Agricultural Outlook)이 월간으로 발간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경제의 전반에 걸친 보고서이다.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관측내용은 전국에 홍보되는데 주요정보내용은 지역별, 품목별 시장가격(주로 도매시장), 출하동향, 수요처별 구매량, 재고상황 등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부담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서 발간되는 주요 농업관측자료를 보면 <표1>과 같다.

표1. 미국 농무부 주요 농업관측자료

정보자료명	발간주기	주요내용
농업관측 (Agricultural Outlook)	월 1회	○국내농업(축산업)의 최근동향 및 전망 ○일반 국내경제의 최근동향 및 전망 ○세계 농업(축산업)의 최근 동향 및 전망 ○세계 농산물(축산물)의 무역동향 및 전망
가축 육류정보 (Live Stock and Meat Situation)	2, 4, 6, 8, 10, 11월 (년 6회)	○품목별 사육동향 ○품목별 수급동향 ○품목별 가격전망
낙농정보(Dairy Situation)	3, 5, 7, 10, 12월 (년 5회)	
가금 계란 정보 (Poultry and Egg Situation)	3, 6, 8, 12월 (년 4회)	
사료정보 (Feed Situation)	2, 5, 8, 11월 (년 4회)	
농가 소득 정보 (Farm Income Situation)	2, 7월 (년 2회)	○농산물(축산물) 판매가격 ○자가소비, 판매상황 ○총수입, 현금수입등 경영분석결과
유통 및 수송정보 (M. T. S)	2, 5, 8, 11월 (년 4회)	○농축산물의 소매가격, 농가수취가격, 유통비용 등
생산비 정보 (Farm Cost Situation)	봄, 가을 (년 2회)	○농산물(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 ○차년도 생산비 전망
농축산물 수급추정 (A SDE)	년 1회	○주요농축산물 생산추정 및 최근시장동향 ○곡물 및 축산물 재고현황 ○식부 및 사육의향조사 자료
농업, 관측 요약 (Agriculture Outlook Digest)	월 간	○생산, 수요, 농가수취가격, 농업노동력등의 최근동향과 전망을 2~3P로 발간
세계 농업 정보 (World Agricultural Situation)	년 3회	○세계 농업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 및 각국가들에 추진하는 농축산정책 동향등

일본

일본이 농업관측 제도를 맨처음 도입한 것은 미국보다 약 30년이 늦은 1952년부터였는데 이는 일본 농업경제가 통제경제에서 자유경제로 옮겨감에 따라 시장정보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시작되었다. 1952년부터 1962년까지 10년간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공포하였으나 1963년부터는 해당년도 1년간의 연도관측을 실시하여 과년도의 실적과 함께 결과를 공포하고 그후 하반기에 여건변동 등으로 수정관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재관측을 실시하여 당초 관측내용을 수정 발표하고 있으나 그에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최근 축산관측에 있어서는 타 농작물과 같이 연 1회 실시하는 외에 주요 축산물에 대하여 매월 출하전망과 가격전망 등을 예고해 주고 있어 양축농가들이 시장동향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관측 업무는 농림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행하여 오다가 1961년 11월 농업관측업무가 「대신관방」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신관방 조사과내에 농업관측반을 두고 그 아래 5개계를 두어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다.

일부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관측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 주산물을 중심으로 「현(縣) 농업관측정보」 업무를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각 품목별로 설치된 9개 부회(그중 축산부회는 2개)에서 농업관측 심의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대신관방 소속의 기획실에서 장기예측을, 그리고 조사과 소속의 농업관측반에서는 연도 관측을 담당한다.

일본의 축산물 유통정보의 종류를 보면 축산물 시황정보가 8종으로서 매일 매일 발간되고 있고 축산물 산지정보가 5종으로 매월 정기발간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유통정보는 모두가 데이터 통신으로 수집·분산되고 있는데 유통정보 체제를 보면 산지정보는 농림수산부 통계정보사무소를 통

하여 그리고 시장정보는 시장조사실을 통하여 교환망(D. D. X)을 거쳐 농림수산부 유통정보실에 종합·수집되고 이 자료는 다시 통계정보사무소를 통하여 산지 및 시장정보로 이용되게 되며 일부는 화상(畫像)교환장치→전화망→이용자(전화, Telex, FAX, 전산자료 등)에게 분산된다.

대만

대만의 농업관측은 1972년부터 제도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미국 1922, 일본 1952)되었는데 식량작물(수도, 고구마, 땅콩, 콩, 옥수수등 5개품목)과 과실(마나나, 파인애플, 감귤, 탕자 등 4개 품목)이 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축산분야에서는 돼지만이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고 관측내용은 작부시기별 작부면적 및 단수예측(段收 豫測)과 돼지사육 및 수급예측을 중점 실시하고 있다.

돼지는 경영방식이 농작물과는 다르므로 표본농가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성정부(省政府)가 조사한 돼지통계에 의거, 농회(農會)공동판매 상황, 냉동돈육의 수출상황, 생돈가격상황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돼지공급과 수요예측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홍보 및 보급하고 있다.

대만의 농업관측사업은 대만 경제부의 농림국 협조하에 농촌부흥회(JCRR)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유통정보망은 농림청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3개소의 교환국과 16개소의 지역중계소를 통하여 전달되게 된다.

또한 유통정보는 품목별 최고가격, 중간가격, 최저가격과 품목별 전일 거래량과 거래액 등이 조사되며 농회는 조합원에게 이 자료를 제공하는 이용자의 위치에 있고 전달방법으로는 가격정보가 순보와 월보로, 농업정보가 격월간으로 그리고 주간 농산물 유통정보가 발간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